

목양칼럼

무관심하지는 않으신가요?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고 싶으십니까?
최고의 선물을 소개해 드립니다. 다름 아닌 "관심"입니다.
그분에게 관심을 가지세요. 그분에게 최고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지금 시대는 무관심의 시대입니다.
마르틴 부버가 주창했던 "나와 너" 의 삶이 아닌
"나는 나, 너는 너" 의 삶이 팽배해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누가 어려움을 당해도 그냥 지나치는 것은 물론
아는 사람의 아픔에도 눈을 감고 사는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관심하셨더라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다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와 심판을 받았을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끝없는 관심이 오늘 우리가 누리는 영생과 축복과
앞으로 누릴 영원한 유업을 가져다준 것입니다

오는 주간은 날 위해 고난과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그 발자취를 따르는 고난주간입니다.
설마 예수님의 고난에는 무관심하지는 않으신가요?
사순절 서원 새벽기도회 마지막 한 주간,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을 찾아오신 고난의 예수님께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함께 새벽기도회에 나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고난에 깊은 관심을 갖는 것이 진정한 예수님 사랑임이 분명합니다.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퀸즈장로교회

The Korean American Presbyterian Church of Queens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718)886-4040 中文 (347)965-0343 Fax (718)886-5555 http://www.kapcq.org

원로목사 장영춘	담임목사 김성국		
부목사 김도현/QPEM (347)450-7736	김재형 (347)761-7663	오인수 (267)205-1295	
전도목사 이신은 (646)220-8324	다민족선교사 송요한 (917)940-0596		
전도사 고부영/1교구 (917)423-5298	계화자/2교구 (646)641-8944	이양미/3교구 (516)717-8720	함미희/4교구 (917)359-2857
황혜옥/중국교포, 중국어부 (718)825-6969	천위지/중국어부 (347)965-0343	진기움/EEP (201)835-3166	
소유영/행정 (917)318-7030	전성호/청년선교부 (201)370-3455		
교육전도사 이명옥/영아부 (646)327-6438	강지영/유아부 (718)801-2339	이소영/유치부 (347)610-5399	평정은/유년부 (646)423-3583
차평화/중등부 (703)819-8785	최진식/ (646)887-7419	손요한/중학과부 (646)789-1118	
직인 정진규/관리 (646)651-7255	홍현숙/서무 (201)759-0820	Shen de Guia/QPEM (917)254-7455 오재혁 (646)662-9015	
찬양대 1부 / 임마누엘 찬양대	2부 / 호산나 찬양대	3부 / 시온 찬양대	4부 / 할렐루야 찬양대
지휘 / 최진식	지휘 / 최경희	지휘 / 소유영	지휘 / 강혜영
반주 / 이선영 임세현	반주 / 김정윤 이승은	반주 / 송소영	반주 / 최미희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퀸즈장로교회**

원로목사 **장영춘**
PASTOR EVENTUS, REV. YOUNGHOON CHANG

담임목사 **김성국**
SENIOR PASTOR, REV. SEOUNG KOOK KIM

주후 2018년 3월 25일
제 44-12호

주일예배 (1,3부) 종려 주일

1부 / 오전 8:30 김재형 목사
2부 / 오전 10:30 김성국 목사
3부 / 오후 12:15 김성국 목사
4부 / 오후 2:00 오인수 목사

* 예배선언 CALL TO WORSHIP		사회자
* 참회와 경배 CONFESSION & ADORATION		다같이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사도신경	다같이
* 찬송 HYMN	298	다같이
헌신기도 PRAYER		1부 / 김수산 장로 3부 / 정길표 장로
성경봉독 SCRIPTURE	요한복음 19:1-16	사회자
찬양 CHOIR	어린양을 보라 존귀하신 구주	임마누엘 찬양대 시온 찬양대
말씀 SERMON	에케 호모	김성국 목사
헌금 및 찬송 OFFERING & HYMN	311	다같이
광고 ANNOUNCEMENT		사회자
* 찬송 HYMN	338 / 1,3절	다같이
* 축도 BENEDICTION	치유와 축복기도	김성국 목사
* 표는 일어섬		

주후 2018년 3월 25일

주일예배 (2,4부)

종려 주일

2부 / 오전 10:30 김성국 목사
4부 / 오후 2:00 오인수 목사

예배부름 CALL TO WORSHIP		사회자
신앙고백 APOSTLE'S CREED	사도신경	다같이
영광송 ANTHEM		찬양대
* 경배와 찬양 PRAISE & WORSHIP		다같이
헌신기도 PRAYER		2부 / 김원도 장로 4부 / 함용식 장로
광고 및 환영 ANNOUNCEMENT		사회자
헌금 OFFERING & HYMN	311	다같이
성경봉독 SCRIPTURE	요한복음 19:1-16 에베소서 6:18-20	사회자
찬양 CHOIR	너 주님의 놀라운 사랑	호산나 찬양대 할렐루야 찬양대
말씀 SERMON	2부/ 에케 호모 4부/ 복음으로 승리하라: 기도	김성국 목사 오인수 목사
* 찬송 HYMN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다같이
* 축도 BENEDICTION	축복 기도	설교자

* 표는 일어셈

주일 저녁 예배

성례 예배

오후 4:00 (3/25/18)	사회: 김성국 목사
예배선언	사회자
찬송 436	다같이
기도	이무근 장로
성경봉독	사회자
사도행전 16:30-34	
찬양	찬양대
말씀	김성국 목사
구원, 세례, 기쁨	
특송	유빌리양상블
세례식	학습, 유아세례, 입교, 세례 김성국 목사
성찬식	입교, 세례 받으신 분 김성국 목사
광고	사회자
찬송 150/1,4절	다같이
축도	김성국 목사

수요 기도 예배

청년 선교위원회 헌신 예배

오후 8:00 (3/28/18)	사회: 김유진 청년
예배부름	사회자
경배와찬양	다같이
기도	최재영 청년
헌금 헌신찬양	다같이
봉헌기도	정진웅 청년
성경봉독	김아란 청년
아모스 2:9-12	
말씀	김성국 목사
청년 중에서 나실인을	
합심기도	다같이
광고	남형욱 장로
축도	김성국 목사
새가족 환영회	
제 3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교회소식

3월 기도의 달 - 깨어 있어 기도하라

환영

새로 오신 가족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하 친교실에 새가족을 위한 지정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새가족 환영회(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에 모두 초대합니다).

행사 및 모임

2/19(월)-3/31(토) 사순절 서원 새벽 기도회	3/25(주) 종려주일, 성례 예배
3/28(수) 청년 선교 위원회 헌신 예배	3/30(금)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는 밤/ 성례식
4/1(주) 부활 주일 / 부활절 축하 찬양제	4/4(수) 갈렙 / 다비다 선교회 헌신 예배 / 지도원 성경 공부

알림

- 제 31회 사순절 서원 새벽기도회 안내 * 주제: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 기간: 3/31(토)까지
- 오늘 저녁 예배는 성례예배로 드립니다.
- 부활절 예배 안내
 - '십자가 밑에서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는 밤' 이 3/30(금) 오후 8시에 있으며 성찬식이 있습니다.
 - 새벽 촛불 예배가 4/1(주) 오전 5:45에 있습니다.
 - 부활 주일(4/1) 예배 시간에 부활절 특별 감사 헌금시간이 있습니다. (예산: \$120,000)
 - 부활절 축하 찬양제 '예수 승리 하셨네!' 가 4/1(주) 오후 4:00 저녁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 부활절 백합 꽃을 기증 받습니다. 로비에 신청서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10)
- 여선교회 수련회 안내 1) 일시: 4/2(월)-3(화) 오전 10:00-오후 3:30 2) 강사: 이동진 목사 3) 주제: 말씀이 말씀으로 역사하는 삶 4) 장소: 본교회 5) 회비: \$20.00 6) 문의: 계화자 전도사, 이양미 전도사
- 갯즈월 청장년부 수련회 안내 1) 일시: 4/6-7(금-토) 2) 주제: Amazing Moment!(요2:8) 3) 강사: 김성국목사 4) 장소: 뉴저지 리벤젤 수양관
- 새성전 건축 및 선교를 위한 세무 봉사 1) 기간: 4/8(주)까지. 매주일 오후 12:00-2:00 2) 장소: 205호 3) 문의: 정재운 집사. 접수 2주 후 세금보고 완성. 수익금 전액 새성전 건축 기금으로 봉헌.
- 2018 단기,중기,실버 대원 모집 안내
 - 선교지: 카작스탄, 캄보디아,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케냐, 중국, 아리조나, 할렘, 일본(중기)
 - 훈련일정: * 안경 사역 훈련(4/5부터 매주 목요일) * 언어 훈련(서반아어, 러시아어, 중국어)
 - 일시: 7월중 4)마감: 4/8(주) 5) 문의: 정길표 장로, 이정훈 집사
- 3/31(토) 토요일 총동원 새벽 기도회 찬양 담당: 영,유아,유치부 (다음주: 임마누엘 찬양대)
- 가족기부 장학기금 이재현 이단비 가정, 최종린 학생, 전인자 집사

새가족

정 안 (마르다 2F14) 김금화 (청장년 2F12, 김지현 - 유치) 이만준 (베드로 2F15), 김세린 (청년선교 1Y2) 신용원 (아브라함 1BK1) 김제이 (청년선교 4Y3) 조용기 (청년 대학부 1Y1) 손민우 (청년대학 - 4Y1)

교우소식

출 산 손향선 교우 (2F12)께서 3/4(주) 득남(이승민)하였습니다.
소 천 길학문 장로 (길길자 권사 1N11)께서 3/20(화) 소천하시어 은혜중에 장례를 마쳤습니다. 김용생 장로 부친 김만유 장로님께서 3/15(목) 소천하시어 한국에서 은혜중에 장례를 마쳤습니다.

금식기도자

월 / 김 숙 조영숙 김기태 채영주
수 / 김덕례 김경우 한기덕
금 / 김미순 박민정 최효진

주 / 오순지 김유진 박정심 송순애
화 / 장진숙 채현주 이지영
목 / 김경구 김계순 한기덕
토 / 윤지영 최효진 이양미

헌금하신 여러분께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예배 및 모임

주일예배	1부	오전 08:30	본당
	2부	오전 10:30	
	3부	오후 12:15	
	4부	오후 02:00	
	QBC	오후 02:15	
	영어	오후 12:00	양순관
	중국어	오전 09:30 오후 02:30	
	러시아어	오전 08:30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6:00	본당
수요 기도 예배	수요일	오후 8:00	
새가족 환영 모임	화요일	오후 7:30	친교실
전도폭발훈련	화요일	오후 7:30	고등부실
제자, 영성 훈련	목요일	오후 8:00	

영어부	1부 주일 오전 10:30 2부 주일 오후 12:15	영어부실(지하)
유아부		유아부실(2층)
유치부		유치부실(2층)
유년부		유년부실(4층)
초등부		초등부실(3층)
중등부	주일 오전 10:30	중등부실(4층)
	토요모임 오전 9:00	
고등부	주일 오전 10:30	고등부실(3층)
	금요모임 오후 7:00	
청년 대학부	주일 오후 2:00	본당
	금요모임 오후 8:00	유아부실
청년 선교부	주일 오후 2:00	본당
	금요모임 오후 8:00	중등부실

출석

1부 예배	276	러시아어 예배	27	영어부	33	중등부	62
2부 예배	406	청년 선교부	82	유아부	36	고등부	51
3부 예배	329	QBC	240	유치부	37	청년 대학부	40
4부 예배	157	새벽 예배	2709	중국어 교육부	24	교회 학교 예배	443
영어 예배	176	수요 기도 예배	69	유년부	89	주일 낮 장년 예배	1779
중국어 예배	326	새가족 환영회	17	초등부	71	주일 낮 총계	2222

3월 봉사위원(4월 봉사위원)

책임 장로: 정길표 장로(송동울 장로)

헌신기도	황주현 장로	장봉석 장로	황인섭 장로	채영주 장로
책임권사	계연란 권사 (양정자 권사)	정혜자 권사 (이숙녀 권사)	소은자 권사 (송순애 권사)	청년부
실내 안내	최경선 오영자 홍지혁 강석춘	김형섭 임승룡 허영미 문인숙 이미셀	오성태 송현규 장지숙 정민영	김서희 김누리 권동은 박새롬 정형진 김선의 조한결 신예지 윤국현
헌금 위원	윤영신 심인보 조규옥 윤순자 김정란 차광혁 채송자 강석춘	이지수 허영미 문인숙 임승룡 조인범 김미권	심원희 오성태 고종빈 나인애 김희은 박석미 한원희	김누리 권동은 박새롬 정형진 신예지 조한결 윤국현 박재상 소승우
차량 안내	이영호	정사용	윤지현	최성호

화요일 새가족 환영: 마르다, 베드로(브리스가, 아글라) 주일식사: 마르다(다음주: 루디아)

파송, 협력 선교사

파송선교사: 알마티퀸즈장로교회 김관중 선교사 / 캄보디아 이일훈 선교사 박수영 선교사

협력선교사: 미주크리스천신문 / 한인세계선교협의회 / 단비미션인터네셔널 / 여운세(캄보디아국제선교회) / 국제장애인선교회(미국) / 강인중(케냐) / 홍황식(파키스탄) / 김성일(터키) / 박선숙(미국 장애인) / 최득신(프랑스) / 김명희(미국 할렘) / 최동훈(케냐) / 이동철(온두라스) / 이갈렘(중국) / 김호동(불가리아) / 류동하(한국 경남 통영시 사랑도)

문답 34 문 : 예수님을 ‘우리 주님’ 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금이나 은이 아니라 그의 보배로운 피로

1 우리를 죄와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셨으며,

2 우리의 전체, 몸과 영혼을 자신의 소유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월- 사도신경/ 찬송가 384 장 /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 스가랴 9:9-12

오늘 본문은 우리를 위하여 왕이 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왕은 세상의 왕들과 다르게,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라고 하십니다. 또한, 이 왕은 겸손하시다고 하십니다.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는데, 나귀의 작은 것 나귀 새끼를 타신다고 하십니다. 이 왕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가장 높으신 왕의 왕 주의 주이심에도 불구하고 가장 낮은 자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셨습니다. (갈 2:20) 겸손의 왕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이야말로 가장 안전한 삶이며 가장 기쁜 삶인 줄을 믿습니다.

합심 기도/ 주기도문

화- 사도신경/ 찬송가 435 장 /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 마태복음 21:1-9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실 때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기뻐하며 맞이했습니다. 겉옷을 길에 펴고, 나뭇가지를 베어서 길에 펴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였습니다. 그러나,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오셨습니다. (마가복음 10:45) 그는 겸손의 왕, 사랑의 왕이십니다. 죄가 많고 연약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을 함께 묵상하시며,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는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합심 기도/ 주기도문

수- 사도신경/ 찬송가 144 장 /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 빌립보서 2:5-11

우리가 품어야 할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비우셔서 우리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자신을 위하여가 아니라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 섬김과 희생의 마음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 고난 주간,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우리도 이와 같은 마

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죄인임을 기억하며 사랑하기보다 늘 낮아져야 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기보다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을 높여야 하겠습니다.

합심 기도/ 주기도문

목- 사도신경/ 찬송가 149 장 /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 요한복음 13:1

예수님은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을 배신하고 떠나갈 것을 아셨습니다. 베드로가 세 번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미약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들을 다시 찾아가셔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복음의 아름다운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성경은 이 예수님께서 우리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우리인데,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을 깊이 생각하시며 감사로 나아가시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합심 기도/ 주기도문

금- 사도신경/ 찬송가 150 장 /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 마태복음 27:46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외치신 절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는 하나님을 “아버지” 라 부르지 못하고 “하나님” 이라고 부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죄에 대한 공의의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모두 다 그에게 부여졌기 때문입니다. 누구 때문에 그런 고통을 당하셔야 했을까요?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고난 당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고난 당하셨습니다. 이 하나님께 온전한 감사와 찬송으로 나아가시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합심 기도/ 주기도문

토- 사도신경/ 찬송가 151 장 /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 베드로전서 2:22-25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은 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입에 거짓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묵묵히 그 고난을 죽기까지 감당하십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고난 당하셨을까요?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양과 같이 길 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 그분을 늘 기억하고 은혜에 감사하며 삽시다.

합심 기도/ 주기도문